

친애하는 장재언 위원장님께

2014년 북경에서 남북 대표 회담 이후 이번 북경에서의 만남을 기대하였으나, 종단의 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 KCRP에서는 김광준 사무총장, 정인성 남북교류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종단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따뜻한 대화로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남북 종교인들은 항상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고 민족이 화합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침 금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더욱 단합하고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과 조선 종교인협의회의 깊은 관심과 굳건한 신념으로 남북 간 교류의 장이 활짝 열린다면 큰 진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조선 종교인협의회 참석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거듭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6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ACRP 집행위원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3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